



연체 발생뎨 꼭 5일 이내 상환을

신용 카드는 1~2개만 사용 바람직 신용조회 많이 할수록 평가 나빠져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경제활동에 적용하면 아마 '신용을 잃으면 크게 잃은 것이다'라는 정도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를 잘 해서 부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신용관리를 잘 해 부자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신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신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소한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거나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 없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단기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대출이나 카드사용액에서 발생하는 연체 금액 뿐만 아니라 세금, 보험, 국민연금, 통

과하다. 나머지 50% 정도는 신용등급이 5, 6, 7급에 몰려있어 10~13%대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물론 전문직처럼 소득이 높거나 공무원같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꼭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평소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을 높여가는 것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때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중요하게 반영되며 타 금융권 거래보다 동일 금융권 거래 실적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급여 이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한 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떠한 대금 결제도 연체하는 것

은 좋지 않으며, 만약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되도록 5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것으로 1~2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조회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많은 수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용조회 기관 정보를 늘리는 것은 요주의자로 분류돼 신용평가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용 평점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려는 것이다. 크레디트뷰로(CB)로 불리는 신용평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현재 신용평점과 미처 알지 못한 연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므로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개인 신용관리에 철저하라

美 쇠고기 내주중 유통

첫 수입 6.4t 뺏조각 발견 안돼

지난 23일 수입된 6.4t의 미국산 쇠고기에서 뺏조각이 발견되지 않아 반송 없이 이른바 다음주 중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수입업체 '네르프' 관계자는 26일, "X레이 이물 검사는 모두 끝났고 전체 490여 박스에서 뺏조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7일 오전계면 최종 검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 중 유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역부터는 지난달 초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대로 전량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하므로, 다음주 정도면 수입물량 6.4t 모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국내 시장에서 본격 유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 당국은 "아직 검역 결과를 확인할 줄 수 없다"며 "검역원장이 27일 오후 이번 4차 수입법에 대한 최종 검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입분의 경우 전량 유통된다고 해도, 우선 중간도매상들에게 '품질 테스트용' 성격으로 공급되므로 일반 소비자가 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네르프 측은 "다음달 초, 중순 이후에는 1주일 평균 컨테이너 10박스(180t) 정도를 배로 들여와 총 700여톤을 추가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른 한 달안에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본격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 배당금 너무 빠돌렸나 3월 경상적자 15억달러

올들어 두번째 적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받은 배당금을 대거 해외로 송금하면서 3월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4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내 1월의 4억3천만달러의 적자 이후 올들어 두 번째 적자를 기록했다.

2월 4억달러의 흑자를 났던 경상수지는 1~3월 누적으로 15억2천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3월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4월의 16억1천만달러 적자 이후 11개월만에 최대에 해당한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대외배당 송금 수요 집중으로 경상수지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경우가 모두 4월이었다.

따라서 올해 4월에는 경상수지 적자액이 3월 규모를 훨씬 더 능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3월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

를 기록한 것은 대외배당송금이 집중되면서 소득수지가 큰 2년만에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소득수지는 2월의 8억5천만달러 흑자에서 3월에는 20억9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2005년 4월의 21억2천만달러 적자 이후 23개월만에 최고기록이다.

3월 상품수지는 수출이 투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데 힘입어 2월보다 흑자액이 1억1천만달러 늘어난 2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 흑자 확대와 특허권 사용료 적자가 줄어 전월보다 적자 규모가 8억7천만달러 축소된 16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경상이전수지는 적자 폭이 전월보다 6천만달러 축소된 2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자본수지는 증권투자 수지가 순유출을 보였으나 기타 투자수지가 큰 폭의 순유입을 나타내 31억6천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국 수산식품 한자리에

전국 250여개 수산식품이 한 자리에 모인 '서울 수산식품 전시회'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사조참치 부스에서 참치회를 시식하고 있다. 전시회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전국 250여개 수산식품이 한 자리에 모인 '서울 수산식품 전시회'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사조참치 부스에서 참치회를 시식하고 있다. 전시회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상조서비스, 꼼꼼히 체크하세요”

환급거절·과다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급증

미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나중에 장례, 결혼, 회갑 등의 관혼상제 행사를 할 때 불품과 차량, 음식 및 인력 등을 제공받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보다 42.6% 증가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1~4분기에 접수된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환급거절·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청약철회·중도해지 불가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0건(54.3%) 이었고, 부당 계약 체결 및 대금 부당 인출이 21건(11.4%), 계약 불이행 13건(7.1%), 연락 두절 및 폐업 4건(2.2%) 등이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당 계약 체결 및 대금 부당 인출 피해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예금

계좌에서 월회비를 무단 인출하는 사례가 주로 접수됐다.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는 장례식이 나 결혼식 때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서비스 이용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총동적으로 계약하거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후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금서비스 수수료 대폭 인하

LG·우리 등 카드사 또 할인경쟁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각종 할인 혜택을 내세운 카드를 앞다투어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경쟁을 벌이는 등 회원 확대를 위한 전방위 영업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은 결국 건전성 약화라는 '부메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금융감독 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내세워 고객의 현금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6월까지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고객 중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7.7%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LG카드도 6월까지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고객이나 우량 회원 또는 소액 이용 회원에게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0~20% 깎아주기로 했다.

삼성카드도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고객 47만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할인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고객 등급에 따라 연 9.9~27.5%가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이달 말까지 벌이는 행사 기간에는 최저 연 7.9%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日보다 비싼 서울 체재비 서비스 적자 심화 원인”

무역협회 월례토론회 지적

서울의 체재비가 동남아 뿐 아니라 일본보다도 비싸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는 12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서비스수지 적자 심화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악화되는 이유는 경쟁국에 비해 높은 불가수준과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 미흡, 해외 유학, 연수생 급증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 미국 서비스수지 적자 40억 달러 중 여행수지 적자는 30억 달러였고, 대 일본 서비스수지도 여행수지 적자가 5억 달러나 나는 바람에 2005년부터 적자(7억달러)로 반전됐으며, 대 중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서비스수지 적자도 모두 확대추세인데 이는 여행수지 적자 때문이라는 게 현 원장의 분석이다. /연합뉴스

“내년 적자국채 증가 불가피”

장병완 예산처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내년 기초조달연금제도 시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등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보다 적자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이 말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금년보다 1~2% 포인트 늘어난 7~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예결위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자료에서 “세입은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7~8% 수준의 증가에 예상되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며 “반면 세출부문에서는 기초조달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2단계 국가균형발전 추진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7~8%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 제조 수입 술 합성감미료 검출

식품안전당국 회수 폐기 조치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 유통중인 일부 수입 술에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합성감미료가 검출돼 식품안전당국이 회수 폐기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국산 수입 주류를 수거 검사한 결과, ‘포뮬 연태고양(燻台古釀)’, ‘고량주(高粱酒)’, ‘매화고량주(梅花高粱酒)’, ‘노조양(老朝陽)’ 등 10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와 ‘사카린나트륨’이 나와 관할 시·도에 이들 부적합 제품을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30~5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한국은 인체 유해 논란이 있어 식품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카린나트륨도 음료류 등 일부 식품에 한해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제품이 국내 들어와 유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주)씨온수	물류관련 경력사원 채용공고	초대졸/경력3년	3000~3200	04/27	062-519-1440
태정산업(주)	영업출하직 직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8	062-953-2300
동국계약(주)	상담영업사원 신인/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2-2191-9820
(주)미래피워	사장님 비서 및 경력업무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5/02	062-236-2364
연호전자	LED 제품 설계(주)연호전자 광주 사원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5/07	02-3453-0871
풍일산업(주)	프레스 자동화 설비 경력사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5/07	062-941-7891
한국카리엔	[순천] 연구실 남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7	02-773-6501
(주)퍼펙트엔지니어링	도시계획/토목 신인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07	062-681-2300
(주)달성	제철/기계장치 플랜트 공사관리직 사원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05/11	061-763-9600
(주)금강전력	경력업무/건설기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11	062-223-6669
(주)대우에이텍	무역 영어 능통자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2800~3000	05/11	062-942-8611
엘이디아이텍(주)	영업 관리 및 마케팅 지원 업무 사원	대졸/경력3년	2600~2800	05/11	062-602-7849
한양항공(주)	항공정비사 (면장 다발 소지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1	062-943-6620
뉴모텍(주)	품질관리사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11	062-601-0812

(광주잡코리아 062-6210 제공)

7월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산업자원부는 26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쓰는 사용자 처벌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제품관리법(이하 석대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석대법은 기존법이 제조, 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산자부는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다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